

익산시, 공공승마장 설치 말산업 특화 육성

금강변 승마길 조성 등 금강투어 사업 체험형 관광명소화 나서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 20억 투입 가상 체험관 등 내년 착공

익산시가 공공승마장 설치를 통해 말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한다. 5월 익산시에 따르면 승마산업과 금강변을 접목한 체험형 관광명소화에 나서 말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한다. 시는 말산업의 육성을 위해 금강 EH (ECHO&HISTORY) TOUR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한다.

시는 성당포구와 용머리권역, 용안생태습지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금강변에 승마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건강한 도시 구축을 위해 재활·힐링에 승마를 접목한다. 이를 위해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재활활동과 마음·정신 치유를 위한 힐링을 위해 승마를 활

용한다. 아울러 승마에 대한 친밀감 향상을 위해 가상현실을 도입하며 저변 확대를 위해 유·청소년들의 체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승마장은 총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용안면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에 2만 9000㎡로 조성된다. VR 말산업 체험관은 공공승마부지 내 2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들 사업은 관련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 7월 착공에 들어간다. 또 용안 거대역세 단지 내에 승마길을

오는 2019년 4월부터 조성해 금강 EH TOUR 사업과의 연계에 나선다. 아울러 재활승마 인프라 구축과 우량승용마 육성, 말사육농가 시설개선을 위해 2019년 2차 특구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 주력한다. 유희환 익산시 미래농정국장은 “승마체험을 활성화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재활·힐링 승마를 통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말산업을 새로운 농정트렌드로 키워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고창경제포럼' 내년부터 운영

고창군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고창경제포럼'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창경제포럼은 고창군기업인협의회(회장 김종학) 주관으로 지역 기업인·소상공인·창업예정자·경제관련단체회원·군청간부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다. 포럼은 유명 전문가를 초빙해 경영정보 제공과 인문학 소양 등 경영마인드를 높이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인·기관단체간 경영 네트워크 구축에 지역경제발전전에 기여하게 된다. 참여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고창군청 민생경제과에 방문, 팩스,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는 군청 민생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참여자는 연회비 5만원과 포럼참여시 1만원씩을 납부하면 된다. 회비는 감사수감료와 식대 등 운영경비로 활용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첫눈의 설렘 첫 눈이 내린 6일 오전 정음시청 옆 충무공원이 한 폭의 풍경을 보는 듯 아름답다. 채 떨어지지 않은 붉은 빛 고운 잎에 새하얀 눈을 이고 있는 단풍나무 아래에서 한 시민이 산책을 하고 있다. <정음시 제공>

겨울철 아주 특별한 생태관광 체험해보세요

고창 운곡람사르습지·장수 뜰봉샘 눈길 도보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전북지역 주요 생태관광지역에서 겨울을 맞아 특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자리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 안의 호암마을에서 운곡습지 생태체험, 생태탐상 만들기, 마을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수군은 뜰봉샘 눈길 도보여행, 수분마을 생태탐상 만들기, 달빛 차 마시기 등의

행사를 하며 진안군은 마이산의 지질 자원을 배우고 숲을 느끼는 자리를 만든다. 남원시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도둑개, 소라개 등 다양한 갑각류를 전자·체험하는 행사를 준비하며 임실군 성수산에서는 숲 탐방, 나뭇잎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대에서는 생태습지 배우기, 마르사지 답사 등 생태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생태관광 홈페이지(www.jb-ecotour.org)를 참고하면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둘러보고 지나가는 관람이 아닌,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며 머무르는 생태관광의 매력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광양경제청, 세풍산단 입주 관련 주민설명회 이후 시민단체 중심 “광양알루미늄공장 유치” 환영 분위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풍산단에 입주예정인 광양알루미늄공장과 관련, 지난 3일 환경단체 및 맑카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일에는 세풍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양경제청은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광양알루미늄 유치는 고용 창출과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특히 주민 설명회 이후 지역 상공인단

광양시, LF스퀘어 지역협력사업 이행 권고 구봉산관광단지·근린공원 조성 등 12개 사업 늦어져

광양시는 LF스퀘어 광양점에 개설 당시 약속한 지역협력사업 이행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LF스퀘어 광양점은 지상 3층, 전체 면적 10만1138㎡, 영업 면적 7만1634㎡의 복합 쇼핑몰로 지난해 1월 문을 열었다. 개장 당시 LF스퀘어 광양점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22개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을 완료했다. 광양시는 나머지 12개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1000억원대 규모의 구봉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내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계획이 수정되면서 2020년으로 1년 늦춰져 광양시가 이행을 촉구했다. 골프장과 호텔 등이 들어서는 데 LF 측은 지난 1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사업 구역지정과 토지조사 작성을 하고 있다. 내년 1월중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전남도, 광양시, LF스퀘어가 참여한 투자이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LF물 인근에 조성할 외부 근린공원은 광양시가 토지매입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지 않아 답보상태다. 광양시는 내년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뒤 LF 측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LF스퀘어 광양점이 지역을 위해 약속한 지역협력사업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곡성군,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팀 신설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 나서

곡성군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역공동체팀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지역공동체팀을 신설하고 '곡성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립했다. 군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139개, 2천687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중앙부처 및 전남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산업 고용 창출 사관학교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10개 팀이

군중 관련 창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 국비 2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청년창업 및 청년공공 공간조성'을 통해 창업 희망자 4명에게 상가 리모델링 비와 임대료를 지원했다. 전남도의 동행 일자리 공모사업과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사업에도 뽑혔다. 군은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을 연결하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곡성군 관계자는 "일자리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